

다니엘서 - 번호 39

예언의 태피스트리를 드러내다: 윌리엄 밀러의 꿈과 말세의 근본 진리 회복

Jeff Pippenger

2024-01-03

우리는 모든 예언이 완전한 성취를 이루는 마지막 때에 윌리엄 밀러의 꿈의 예언적 적용을 살피고 있다. 밀러의 꿈은 밀러의 사역을 통해 모아진 재림운동의 기초 진리들의 발견과 확립, 거절과 매장, 그리고 회복을 밝혀 준다. 그 기초 진리들은 1798년에 봉인이 풀린 진리들을 대표했다. 그 진리들은 올라이 강의 환상으로 표상된다. '초기문집'에 기록된 밀러의 꿈은 그의 두 번째 꿈이었으며, 그 꿈은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으로 예표되었고, 마찬가지로 밀러 자신도 느부갓네살로 예표되었다.

이전 글들에서는 느부갓네살이 짐승의 마음으로 '일곱 때' 동안 살았던 기간의 결말이 상징적으로 1798년에 끝났음을 보여 주었다. 그때 그의 왕권이 회복되었고, 느부갓네살은 처음으로 완전히 회심한 사람을 대표하게 되었다. '끝의 때'라는 관점에서 1798년에 그는 '지혜로운 자들'을 대표했다. 또한 우리는 바벨론의 첫 번째 왕으로서 느부갓네살에게 내려진 '일곱 때'의 심판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에게 임한 이천오백이십(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의 심판을 예표했음을 확인했다.

"바벨론의 마지막 통치자에게도, 그 첫 통치자에게 예표적으로 그러했듯이, 신성한 감찰자의 선고가 임하였다: '오 왕이여, ... 네게 이르노니, 나라가 네게서 떠나갔느니라.' 다니엘 4:31." 선지자와 왕들, 533.

화이트 여사는 벨사살의 심판의 때에 그를 '어리석은 왕'으로 지목했다. 느부갓네살의 심판의 때가 끝날 무렵 그는 '지혜로운 왕'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그가 '일곱 때'의 심판으로 유익을 얻었기 때문이며, 벨사살은 그 역사를 알고 있었음에도 유익을 얻기를 거부했다.

그러나 벨사살은 오락과 자기영광을 추구하는 마음 때문에 결코 잊지 말았어야 할 교훈들을 지워 버렸고, 느부갓네살에게 준엄한 심판을 불러왔던 죄들과 비슷한 죄들을 범하였다. 그는 그에게 은혜로 주어진 기회들을 허비하고, 진리를 알게 되도록 손이 미치는 범위에 있던 기회들마저 활용하지 않은 채 소홀히 했다. '구원받으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은 위대하지만 어리석은 그 왕이 무심히 지나쳐 버린 질문이었다. Bible Echo, 1898년 4월 25일.

느부갓네살은 마지막 때에 지식이 증가함을 이해하는 1798년의 "지혜로운 자들"의 상징이다.

그의 입술에서 자만한 자랑이 채 떠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고 알렸다. 곧 그의 이성이 떠나가고 그는 짐승처럼 되었다. 그는 이렇게 일곱 해 동안 비천한 상태로 떨어져 있었다. 그 기간이 끝나자 그의 이성이 회복되었고, 그는 겸손히 하늘의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이 징계 속에 하나님의 손이 있었음을 인정했고, 다시 왕위에 복귀하였다.

"공개 포고문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죄와 그의 회복에 나타난 하나님의 크신 자비를 인정하였다. 이는 성경 역사에 기록된 그의 생애의 마지막 행적이었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81년 2월 1일.

느부갓네살의 '일곱 때'가 끝났을 때 그는 공개 고백을 포함한 공개 선포를 했다. 밀러는 느부갓네살로서, 끝의 때에 지식의 증가를 이해하는 1798년의 '지혜로운 자'를 상징한다. 그들 둘 다 꿈을 두 번 꾸었고, 각자의 두 번째 꿈은 상징적으로 '일곱 때'를 가리킨다. '일곱 때'는 앞선 글들에서 전환점을 표시하는 것으로 보여졌다.

1798년에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교만한 상태에서 지혜로운 자의 상태로의 전환을 표시한다. 그 전환에는 그의 공개적 고백이 포함되어 있었다. 1798년은 또한 성경 예언의 다섯째 왕국과 여섯째 왕국 사이의 전환점이었다. 또한 첫째 천사의 도래를 알렸고, 이로써 새로운 경륜을 알렸다. 이는 성경 예언의 다섯째 왕국이 치명적인 상처를 받기 전에는 다가올 심판에 대한 경고가 이루어질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 메시지 자체가 이 운동이 언제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빛을 비춰 준다. 그것은 '영원한 복음'의 일부라고 선언되며, 심판의 시작을 알린다. 구원의 메시지는 모든 시대에 전파되어 왔지만, 이 메시지는 오직 마지막 날들에만 선포될 수 있는 복음의 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그때에만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는 말이 참되기 때문이다. 예언들은 심판의 시작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을 제시한다. 이는 특히 다니엘서에서 그렇다. 그러나 그의 예언 중 마지막 날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다니엘은 그것을 '끝의 때까지' 닫아 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우리가 이 때에 이르기 전에는 이러한 예언들의 성취를 근거로 심판에 관한 메시지가 선포될 수 없었다. 그러나 끝의 때에는, 예언자가 말하듯이,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다니엘 12:4.

샤도 바울은 그의 시대에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지 말라고 교회에 경고하였다. 그는 말하기를,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또 죄의 사람이 드러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였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큰 배도와 '죄의 사람'의 장기간의 지배가 지난 후에야 우리는 우리 주의 재림을 바라볼 수 있다. '죄의 사람'은 또한 '불법의 비밀', '멸망의 아들', '그 악한 자'라고도 불리는데, 예언에 따라 교황권을 가리키며, 1260년 동안 그 지배권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 기간은 1798년에 끝났다. 그리스도의 강림은 그때 이전에는 있을 수 없었다. 바울의 이 경고는 1798년까지의 기독교 시대 전체를 포괄한다. 그때 이후에야 그리스도의 재림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야 한다.

"그러한 메시지는 지나간 시대 어느 때에도 주어진 적이 없었다. 우리가 보았듯이 바울은 그것을 설교하지 않았고, 그는 형제들에게 주님의 오심을 그때로서는 아주 먼 미래로 가리켰다. 종교개혁자들도 그것을 선포하지 않았다. 마르틴 루터는 심판을 자기 시대에서 약 삼백 년 뒤로 보았다. 그러나 1798년 이래로 다니엘서의 봉인이 열리고, 예언에 대한 지식이 증가했으며, 많은 이들이 심판이 가까웠다는 엄숙한 메시지를 선포해 왔다." 대쟁투, 356.

1798년에 구원 사역의 새로운 경륜이 도래했으며, 그 새로운 경륜은 1844년에 시작될 또 다른 경륜에 대해 경고하였다. 그 경륜의 전환 때에는 한 문이 닫히고 한 문이 열릴 것이다.

빌라델비아에 있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신 이, 참되신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보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그것을 닫을 사람이 없다.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 3:7, 8.

문이 열리는 것은 새로운 경륜의 시작을 나타낸다. 기원전 723년부터 1798년에 이르기까지 진행된 첫째 진노가 끝나는 1798년에, 나라들과 기별에 관한 경륜적 변화가 있었다. 또한 기원전 677년부터 1844년에 이르기까지 진행된 마지막 진노의 끝인 1844년에도 경륜적 변화가 있었다. 1798년에 다가오는 심판을 경고한 첫째 천사의 기별의 경륜이 도래했다. 느부갓네살과 밀러는 모두 '끝의 때'에 '지혜로운 자'로 대표되는데, 그때 '문'이 열리며 첫째 천사의 기별에 대한 내적 경륜이 개시되었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으로의 외적 경륜 변화가 이루어졌다. 1844년 10월 22일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열렸을 때 첫째 천사의 기별의 경륜은 성취되었고, 셋째 천사의 경륜과 조사심판이 도래했다.

밀러의 두 번째 꿈은 1798년에 문이 열리면서 시작되며, '한밤중의 외침'의 기별을 선포하기 위해 부활하는 '두 증인'의 전환기에 문이 열렸을 때 끝난다. 예언적으로 느부갓네살과 밀러는 둘 다 1798년에 바다 짐승의 나라에서 땅 짐승의 나라로의 전환을 대표했다. 그들은 둘 다 1844년에 조사심판의 임박과 도래의 선포를 대표했다. 레위기 26장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일곱 때'의 기간에 걸쳐 그의 백성을 향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첫째와 마지막 '진노'의 종결을 1798년과 1844년이 나타낸다. 1798년부터 1844년까지의 46년은, 언약의 사자가 1844년 10월 22일에 갑자기 임하신 그 영적 성전의 세움을 나타내는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옮기실 때였다.

1798년과 1844년은 '일곱 때'로 표시되는 여러 전환점을 가리킨다. 1856년에 밀러파 재림운동이 빌라델비아 단계에서 라오디게아 단계로 옮겨가는 전환 역시 '일곱 때'에 관한 지식의 증가로 표시되었으며, 그 지식은 그 후 1863년에 거절되었다. 1798년에는 다니엘서에서 비롯된 지식의 증가가 있었는데, 그 안에는 레위기 26장의 동일한 '일곱 때'가 포함되어 있었고, 그것은 밀러파 재림운동의 빌라델비아 단계의 끝 무렵에 결국 거절되었다.

1856년부터 1863년까지의 7년은 첫째 천사의 운동이 빌라델비아에서 라오디게아로 전환되는 것을 상징했다. 라오디게아 기별이 1856년에 주어졌고, 인봉이 풀린 "일곱 때"의 새 빛이 7년 동안 세 단계의 시험 과정을 가져왔는데, 재림운동은 1863년에 그 시험에 실패했다. "일곱 때"의 빛을 받아들이거나 거절하도록 7년이 주어졌다. 밀러주의 빌라델비아 재림운동에서 밀러주의 라오디게아 재림운동으로의 전환은, 종말에 그 순서가 뒤바뀌어 셋째 천사의 라오디게아 운동에서 셋째 천사의 빌라델비아 운동으로 전환될 것을 예표한다.

이사야의 65년 예언은 이스라엘의 북왕국과 이어 남왕국을 향한 하나님의 처음과 마지막 진노의 시작을 알린다.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고,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다. 그리고 육십오 년 안에 에브라임은 꺾여 더 이상 민족으로 남지 못하리라. 이사야 7:8.

이사야의 65년 예언은 기원전 742년에 주어졌고, 65년 안에 북왕국이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그로부터 19년 뒤인 기원전 723년에 북왕국은 앗수르에게 포로로 끌려갔다. 65년이 끝나는 시점인 기원전 677년에 바벨론에 의해 므낫세가 사로잡히면서 남왕국에 임한 진노가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이 65년은 북왕국이 처음 포로로 끌려가기까지의 19년과, 이어서 므낫세가 포로가 되기까지의 46년을 가리킨다.

그 예언들은 각각 1798년, 1844년, 1863년에 성취되었다. 1798년에는 첫째 천사의 도래와 함께 구원의 기별에 내적 전환이 일어났고, 성경 예언에 나타난 왕국들에도 외적 전환이 일어났다. 1844년에는 셋째 천사의 도래로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닫히고 조사심판이 시작되면서 구원의 기별에 내적 전환이 일어났다. 1863년에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두 뿔이 두 부류로 나뉘면서 외적 변화가 일어났다.

공화주의의 뿔은 그때부터 땅의 짐승의 역사를 지배하게 될 두 정당으로 분열되었다. 개신교의 뿔은 두 가지 배도의 형태로 나뉘었는데, 하나는 자신들이 개신교라 하며 일곱째 날 안식일을 지킨다고 주장하는 집단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들이 개신교라고 주장하면서도 예배의 날로 태양의 날을 선택하여 이를 고수하는 부류였다.

그 역사 속에서 암흑시대에서 나온 개신교의 뿔은 1840년 8월 11일부터 1844년 10월 22일까지 시험을 받았고, 그 시험 과정을 통과하지 못해 일요일을 지키는 개신교인 무리에서 일요일을 지키는 배도한 개신교인 무리로 전환되었다.

1844년에 세워지고 확인된 참된 개신교의 뿔의 역사 속에서, 1856년부터 1863년까지 시험하는 과정이 있었다. 그 후 참된 안식일 준수 개신교의 뿔은 필라델피아에서 라오디게아로, 또 참된 안식일 준수 개신교 백성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배도한 개신교의 뿔로 전환되었다. '일곱 때'는 1798년, 1844년, 1856년, 1863년과 연관되어 있다. '일곱 때'는 전환점과 관련된 상징이며, 이 진리는 여러 증거에 의해 확립되어 있다.

1798년에 '일곱 때'에 대한 지식이 증가했는데, 밀러가 발견한 최초의 기간 예언이 바로 그 진리였기 때문이다. 1863년까지 그 진리는 배척되었고, 이로써 이사야 7장에 제시된 예언의 65년 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확인되었다.

전체 2,520년의 예언에는 시작과 끝에 각각 서로 거꾸로 비추는 거울상처럼 대응하는 65년의 구간이 있다. 예언이 주어진 기원전 742년에 시작된 처음 65년의 시작을 예표로 한 마지막 65년의 시작(1798년)에는 "일곱 때"에 대한 지식이 증가했으며, 이를 "지혜로운" 밀러파가 이해하고 선포했다. 마지막 65년의 끝인 1863년에는 같은 진리에 대한 또 한 번의 지식 증가가 있었지만, 그것은 결국 참된 개신교의 뿔의 최근에 관을 쓴 "제사장들"에 의해 거절되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으리라. 호세아 4:6.

다니엘서의 봉인이 풀릴 때 일어나는 지식의 증가는 '일곱 때'와 연관되어 있으므로, '일곱 때'는 전환점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예언적 메시지의 봉인 해제의 상징이기도 하다.

2020년 7월 18일, 첫 번째 실망과 함께 또 다른 전환이 시작되었고, 그 실망은 '지체의 때'를 시작하게 했으며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소돔과 애굽의 큰 성의 거리에서 두 증인이 죽은 채 누워 있는 삼일 반의 기간이 시작되었음을 알렸다.

2020년 7월 18일은 1856년부터 1863년까지의 역사로 예시되어 왔던 상징적 3일 반('일곱 때')의 시작을 알린다. 두 기간 모두 '일곱 때'의 상징이다. 두 기간 모두 경륜의 변화(전환)를 가리킨다. 두 기간 모두 '일곱 때'와 관련된 지식의 증가를 나타낸다.

바벨론 왕국에서 메대-바사 왕국으로 옮겨 가는 과도기 때에 다니엘은 레위기 26장의 기도를 드렸고, 이로써 레위기 26장의 기도는 말세의 전환을 가리키는 이정표로 자리매김한다. 밀러의 꿈에서 '흩어짐'이라는 단어가 일곱 번 언급된 끝에 밀러는 울며 기도한다. 그 울음은 유다 지파의 사자(먼지떨이를 든 사람)가 봉인되어 있던 메시지의 봉인을 여는 순간을 가리킨다.

밀러의 기도는 '일곱 때'와 연관된 레위기 26장에 관한 다니엘의 기도를 가리키며, 밀러의 꿈에서 문과 창문이 열릴 때 일어난다. 그러나 9장에서의 다니엘의 기도는 2장에서의 다니엘의 기도보다 상응한다. 또한 느부갓네살의 '일곱 때'가 끝났을 때 드린 고백의 기도보다 상응한다.

그러므로 밀러의 기도는 레위기 26장의 기도로 나타났는데, 이는 모든 예언이 말세를 보여 주기 때문에 공적 참회의 기도이자 마지막 예언적 비밀의 봉인이 풀리기를 간구하는 기도였다. 그러므로 다니엘서 2장의 비밀은 풀려야 할 마지막 비밀을 가리킨다. 그의 꿈에서 밀러의 기도는 그의 방에 있는 보석들에 벌어진 가증한 일들과 관련된 근심과 의로운 분노의 기도였다. 그의 근심은 14만 4천 명이 인침을 받는 때에 에스겔서 9장에서 탄식하며 부르짖는 자들로 묘사되었다.

밀러는 진리들이 가짜 교리들에 의해 점차 파묻혀 가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마침내 관(즉 성경 자체)까지 파괴되는 지경에 이르는 것을 보았다. 밀러의 관이 파괴된 것은 재림주의의 세 번째 세대에서, 킹 제임스 성경을 제쳐 두고 가톨릭 기반의 부패한 현대 성경 역본들로 대체하려는 의도적인 움직임이 있었을 때였다.

밀러는 울고 이어 기도했다. 그러자 곧 문이 열렸고 사람들은 모두 떠났다. 그때 먼지떨이하는 사람(유다 지파의 사자)이 들어와 창문을 열고 청소하기 시작했다. 이어 밀러가 흩어진 보석들을 염려하자, 먼지떨이하는 사람은 보석들은 자신이 돌보겠다고 약속했다. 그 먼지떨이하는 사람이 청소하는 분주함 속에서 밀러는 잠시 눈을 감았고, 눈을 떴을 때는 쓰레기가 사라져 있었다. 보석들은 방 안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었고, 먼지떨이하는 사람은 더 큰 상자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보석들을 모아 그 상자에 던져 넣으며 말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라는 표현은 진리가 막 봉인의 굴레에서 풀렸음을 상징한다. 밀러에게 봉인이 풀린 진리는 최종 진리인데, 그다음 일어날 일은 큰 외침을 상징하는 "외침" 때 밀러가 깨어나는 일이기 때문이다. 밀러는 밀러주의자들의 역사에서 한밤중 외침의 메시지를 가장 마지막으로 받았고, 꿈에서 그를 깨우는 그 외침이 있기 직전에 잠깐 눈을 감았다. 성경에서 "한 순간"과 "눈"을 언급하는 유일한 구절은 첫째 부활을 가리킨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들지는 아니하겠으나 모두 변화되리라.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마지막 나팔 소리에 그렇게 되리니, 나팔이 울리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은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어야 하고, 이 죽을 것은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어야 하느니라. 고린도전서 15:51-53.

요한계시록 11장에 나타난 바와 같이, 셋째 천사의 라오디게아 운동이 셋째 천사의 빌라델비아 운동으로 전환되는 역사에서, 밀러는 한밤중 외침의 기별을 받은 슬기로운 처녀들 가운데 맨 마지막에 속한 자를 대표한다. 그 기별을 가장 먼저 받은 이들은 가장 영적인 사람들이었다.

"이것은 둘째 천사의 기별에 능력을 부여할 한밤중의 외침이었다. 하늘에서 천사들이 보내어져 낙심한 성도들을 일깨우고 그들 앞에 놓인 큰 사역을 감당하도록 그들을 예비하였다. 가장 재능 있는 사람들이 이 기별을 맨 먼저 받은 것은 아니었다. 천사들은 겸손하고 헌신된 자들에게 보내어져, 그들로 하여금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가라!'고 외치도록 강권하였다. 그 외침을 맡은 이들은 서둘러 성령의 능력으로 그 기별을 선포하고, 낙심한 형제들을 일깨웠다. 이 사업은 사람의 지혜와 학문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고, 그 외침을 들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것을 거스릴 수 없었다. 가장 영적인 이들이 먼저 이 기별을 받았고, 전에는 그 일을 주도하던 이들은 맨 나중에야 그것을 받아들이고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가라!'는 외침을 더욱 크게 하는 데 동참하였다." 초기문집, 238.

요한계시록 11장의 상징적인 삼일 반이 끝날 때, 에스겔 37장으로 대표되는 둘 중 첫 번째 메시지가 선포된다. 첫 번째 메시지는 죽어 흩어진 뼈들을 한데 모으지만, 그들은 여전히 죽어 있다. 그 메시지는 "광야에서" 외치는 음성에 의해 전해졌는데, 이는 에스겔의 메시지가 그 상징적인 삼일 반이 끝나기 전에 시작됨을 보여 준다. 그 삼일 반은 "광야"를 상징하며, 그 메시지는 바로 그 "광야"에서 선포된다. "광야"는 또한 "일곱 때"의 상징인데, 이는 전환과 시험 과정을 도입하는 봉인 해제를 표시한다.

메시지는 점진적으로 전개되었고, 그 수용도 밀러주의 역사에서의 한밤중 외침이 보여 주듯이 점진적이었다. 가장 영적인 이들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의 메시지를 가장 먼저 받아들였으며, 재림주의 역사학자들은 1844년 10월 22일 며칠 전에 윌리엄 밀러가 쓴 편지를 가리킨다. 그 편지에서 밀러는 마침내 사무엘 스노의 한밤중 외침 메시지를 이해하고 받아들였다고 증언한다.

"사랑하는 하임스 형제님께: 나는 일곱째 달에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영광을 봅니다. 주께서 일 년 반 전에 일곱째 달의 예표적 의미를 내게 보여 주셨지만, 나는 그 예표들의 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제,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기를. 나는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기도해 왔지만 오늘에야 비로소 성경 속의 아름다움과 조화와 일치성을 봅니다. 내 영혼아, 주께 감사하라. 내 눈을 열어 주는 데 쓰임 받은 스노 형제, 스토티스 형제와 다른 이들이 복을 받게 하소서. 나는 거의 집에 다다랐습니다. 영광! 영광! 영광!" 윌리엄 밀러, 시대의 징조, 1844년 10월 16일.

밀러의 꿈에 묘사된 바와 같은 한밤중의 외침의 역사의 반복 속에서, 밀러는 잠시 눈을 감았다. 이에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마지막 나팔에; 나팔이 울리니, 죽은 자들이 일으킴을 받으리라." 밀러의 꿈에서 그는, 자신의 역사에서 그랬던 것처럼, 한밤중의

외침의 기별을 마지막으로 받는 자들을 대표한다. 그는 먼지 털이 빗자루를 든 사람이 흩어진 보석들을 거두어 더 큰 상자에 던져 놓기 직전에 마침내 그 기별을 받아들이는 이들을 나타낸다.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에스겔의 둘째 기별, 곧 이슬람의 네 바람의 기별이자 또한 인침의 기별을 마지막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일곱 나팔 중 마지막, 즉 "셋째 화"의 나팔이 울리기 직전에 그렇게 한다.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마지막 나팔에; 나팔이 울리니,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되리라." (고린도전서 15:52)

이 본문은 재림 때 일어나는 첫째 부활을 지적하고 있지만, 요한계시록 11장의 큰 지진의 '한 시'에 일어나는 죽어 있던 마른 뼈들(두 증인)의 부활도 있다. 그 지진의 '한 시'에 일곱 나팔의 마지막 나팔이 울리고, 거리에서 죽어 있던 두 증인이 라오디게아인이 아니라 빌라델비아인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는 셋째 화의 나팔 때 두 증인이 인침을 받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며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밀러는 두 증인을 생명으로 되살리는 그 기별을 마지막으로 받는 자들을 대표하는데, 그 기별은 이슬람의 네 바람의 기별이며 인침의 기별이다.

저 나팔 소리는 소돔과 이집트의 거리에 흩어져 있던 메마른 죽은 뼈들 중 마지막 남은 것들을 되살린다. 밀러는 진리들이 가짜 교리들에 의해 점차 묻혀 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결국 밀러는 눈물을 흘렸는데, 이는 봉인 해제가 시작될 때를 알리는 표시가 되었다. 왜냐하면 봉인 해제는 점진적인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 봉인 해제는 삼일 반의 마지막 시기에 시작되었다.

밀러가 울자, 봉인된 책의 봉인을 떼실 권세를 가지신 분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셨다. 밀러의 꿈에서 그분은 더트 브러시 맨이었다. 이어 밀러가 기도하자 곧 문이 열렸고, 그것은 셋째 천사의 라오디게아 운동이 셋째 천사의 빌라델비아 운동으로 전환될 지점을 표시하는 것이었다. 그의 기도는 레위기 26장의 기도였으며, 마지막 예언적 비밀을 이해하기 위한 기도이자 두 증인에게 삼일 반을 가져오게 한 반역을 공개적으로 자백하는 기도였고, 에스겔 9장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의 기도였다.

기도 후, 그리스도('먼지 쓸을 든 사람')가 들어와 방을 청소하기 시작했다. '먼지 쓸을 든 사람'의 청소 작업이 끝날 무렵, 밀러는 죽은 마른 뼈들이 부활하기로 되어 있던 기간의 끝을 확인하며 잠시 눈을 감았다. 이어서 '먼지 쓸을 든 사람'은 밀러의 방에 흩어져 있던 보석들을 모아 새롭고 더 큰 보석함에 담아 밀러의 방 중앙에 있는 탁자 위에 놓았고, 그와 동시에 두 증인이 기치로 들어 올려졌다. 기치로서 그들은 아직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다른 양 떼에게, 유다 지파의 사자가 방금 새롭고 더 큰 보석함에 던져 넣은 그 메시지를 "와서 보라"고 부른다.

다음 글에서 우리는 1798년에 봉인이 풀린 다니엘서의 진리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올라이 강의 환상을 살펴보기 시작할 것이다. 그 논의를 앞두고 몇 가지 기준점을 미리 제시해 두었다. 첫째, 밀러주의자들의 기별은 (그 성장 단계에서는) 완전했지만, 미완성이었다. 그것은 세 개가 아니라 두 개의 황폐케 하는 권세라는 틀 속에 놓여 있었다. 둘째, 밀러의 꿈이 기초 진리의 최종적 회복을 가리킬 때, 그 기초 진리들은 본래의 영광보다 "열 배 더 밝다." 셋째, 첫째 천사의 운동(밀러주의 운동)은 셋째 천사의 운동에서 반복되지만, 몇 가지 중요한 단서가 따른다. 밀러주의자들은 상징적으로 빌라델비아인이었고, 회심한

느부갓네살이었으나, 결국 불행하게도 1863년에 "여리고를 재건"했다.

셋째 천사 운동은 회심이 필요한 라오디게아인들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여리고(마지막 때의 여리고)의 최후의 멸망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구주께서 오신 것은 족장들과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폐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이는 그분 자신이 이 대표자들을 통해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모든 진리는 그분에게서 나왔다. 그러나 이 값진 보석들은 거짓된 장식들에 끼워져 있었다. 그 귀한 빛은 오류를 섬기도록 이용되어 왔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이 오류의 장식들에서 떼어 내어 진리의 틀 속에 다시 놓이기를 원하셨다. 이 일은 오직 신성한 손만이 이루실 수 있었다. 오류와의 연결로 인해 진리는 하나님과 인간의 원수의 목적을 섬기는 데 쓰여 왔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인류의 구원을 이루도록 제자리에 놓으시기 위해 오셨다. 시대의 소망, 287.